▼

▼

▼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의정

2020 | 통권 제177호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바로잡습니다

강원의정 177호 도의원의 하루 박상수의원 인터뷰 기사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CONTENTS

인사말 02
· 강원도의회 의장

제294회 임시회 04

특집 추가경정예산 06
·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힘겨운 도민에게 활력을

빅이슈 08
· 광해공단 및 공사 통합 재추진에 경악한다!
·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책 입법화하라
· 농민 안전 보장하고 피해대책 마련하라

도의원의 하루 12
·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
·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 박상수 의원(국민의힘·삼척2)
· 김준섭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2)
·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 김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2)

상임위원회 활동 24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5분 자유발언 30

돋보기 34
· 조례 Q&A

뉴스 포커스 38

포토 포커스 40

의정 칼럼 42
· 김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구)
·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의원과 함께 방방곡곡 강원여행 44
· 화천커피박물관과 산타우체국
· 양구 군립박물관

정책제언 48
· 포용성장을 위한 생활 SOC 공급방안

강원도의회의 모든 것 52
· 풀기 어려운 민원, 의회에서 함께 숙의

연간회기 기본 일정 54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싣겠습니다.

강원의정
GANGWON·PROVINCIAL·COUNCIL·JOURNAL

2020 Vol.177
통권 177호 | 2020년

발행일 | 2020년 9월 30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고영선
기 획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박유식
문 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한마음 방역으로 안전하고 따스한 한가위를!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10개월이 넘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 코로나19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홍수와 태풍은 도민의 팍팍한 삶을 거칠게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바캉스 특수라는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8월 말부터 다시 확산된 코로나19는 도민들의 숨통을 죄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지속되는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살기 힘드실까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정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다양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수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구제하는 방책을 찾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스하게 살 맞대고 정을 나누어야 할 이때,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고향에 가지 않고 친지를 만나지 않는 추석을 보내고자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쓸쓸히 보낼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과 친지의 안부를 묻고, 이웃끼리 보듬고 도와야겠습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풍성하게 나누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방역은 지키되 사랑은 나누는 안전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이웃은 우리들 서로에게 정이며 힘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정과 힘을 받아 단출하지만,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빛나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도 여러분을 응원하며 언제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 주문

강원도의회는 9월 2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4개의 조례를 심사·의결하였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방안을 숙의하였다.

코로나19와 수해 피해로 어려운 시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

이번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됐다. 1차 본회의에서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원주5)은 개회사를 통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철원 등 도내 곳곳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며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상임위원회별로 당면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대하)가 열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및 비만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상호 의원(국민의 힘·태백1)은 한국광업공단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심상화 의원(국민의힘·동해1)은 동해지방경찰청장 직급이 업무량에 맞게끔 격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연 의원(국민의힘·철원1)은 강원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승격으로 자연 재해에 대비해야 함을 역설하였고 반태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3)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유치와 혁시도시 발전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나일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정선2)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폐특법 존속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심상화 의원(국민의힘·동해1)은 레고랜드 사업의 MDA (총괄개발협약) 의혹과 관련하여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수용을 요청하였다.

추가경정예산 심의하고 향토사 교육 등 14개 조례 심의·의결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또 도 기획조정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도 대변인실,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또 도 농정국, 농업기술원, 녹색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도 첨단산업국,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일자리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하였다.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824억 원 편성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힘겨운 도민에게 활력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5,824억원 규모로 결정되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지난 8월 5,824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9월2일부터 10일까지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필수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326억 원이 투자된다. 이 예산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6억 원, 농업 빅 데이터 인프라 구축 9억 원,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4억 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660억 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389억 원, 공공산림 가꾸기 5억 원, 산림 재해일자리 14억 원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41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3억 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15억 원, 정밀의료 빅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24억 원 등 한국판 뉴딜과 연계, 연도 내 추진이 가능한 '강원형 뉴딜' 사업에 385억 원이 투자된다.

또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637억 원을 투입한다.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10억 원,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억 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16억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시설 설치 70억 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울타리 및 포획도구 설치 17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0.4억 원 등이다.

이밖에 강원 FC 운영 지원 10억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적자분 3억 원, 일반예비비 증액 108억 원 등 210억 원을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Ⅰ. 지역경제 활성화 5,326억 원

• 소비촉진 및 관광활성화 : 3,901억 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6	·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지원	12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마케팅	5	· 공공미술 프로젝트	64
·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집행)	3,713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3.2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630억 원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4	·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5.4
·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1.8	·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2.2
·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3.9	·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9.4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1.4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 410억 원

·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389	· 공공산림 가꾸기	5
· 산림재해일자리	14	·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0.6
· 유아숲 교육 운영	1.1	·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2.2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0.4	· 숲 해설가 위탁 운영	1.9

• 강원형 뉴딜사업 : 385억 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3	· 춘천 수열에너지 융 · 복합 클러스터 구축	15
·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12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6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6	·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24

Ⅱ. 사회 안전망 강화 637억 원

·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10	· 재난관리 / 재해구호기금 전출	30
· 국가예방접종 실시	23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시설 설치	70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16	· 재해위험지역 정비	61
· 관광지 방역 · 수용태세 개선	34	· 지방도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	35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11	· ASF 대응 울타리 및 포획도구 설치	17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18	·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0.4

Ⅲ. 필수 현안사업 210억 원

· 강원 FC 운영 지원	10	·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3
·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0.5	·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원 운영 지원	1
· 도 이미지 제공 홍보 · 광고	5	· 일반예비비	108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 발표

광해공단 및 공사 통합 재추진에 경악한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주민 반발로 자동 폐기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 6월 26일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통합 기관이 부실해지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자 강원도의회를 비롯해 전국의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9월 2일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곽도영 도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 평창, 영월, 정선, 보령, 문경,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도 「한국광업공단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 서명 운동 등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

강원도를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등 폐광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 재발의를 규탄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자 무리하고, 정당성 없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양 기관을 통합하려는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사실에 강원도민과 함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양 기관의 통합 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9년 말 기준 6조 4,000억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통합기관은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며,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공익적 기능 훼손은 물론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통합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책 입법화하라

강원도의회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월 10일 채택하였다.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태백2)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제주 4·3사건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오명이고 민족의 아픔인 만큼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禁忌)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으로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되었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3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20.7.27.)되었다.

이에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0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접경지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 대책 촉구' 건의

농민 안전 보장하고 피해대책 마련하라

철원 등 도내 접경지역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 때문에 농산물 수확을 못하고 있다. 특히 민통선 마을에는 지뢰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아 논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군에서 지뢰를 탐색해준다고 하지만 탐색과정에서 그간 애써 키워온 농작물이 훼손될 수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월 16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뢰 유실로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지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지 수해에만 그치지 않고, DMZ에 묻혀있던 많은 지뢰가 떠밀려와 현재까지 150여 발의 유실지뢰가 발견됐다"며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해 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일부 농업인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벼 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생명과 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현실적 수준에서의 농작물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에 지뢰 피해 등 접경지역 관련 보장 특약 신설을 요구하면서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1,013ha가 매몰·유실·침수되어 2,772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철원군은 한탄강이 범람해 민통선 인근 4개 마을의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였고, 1,606농가의 농경지 733ha가 매몰·유실되었다.

철원 등 접경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지 수해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DMZ에 묻혀있던 많은 지뢰가 떠밀려와 현재까지 150여 발의 유실지뢰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면적이 대부분 벼 재배지역으로서 지뢰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 사고 위험 또한 높다.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탐색과 제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서 지뢰 유입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지뢰탐지와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철원 정연리·이길리 등 대상지역의 경우 99농가, 113ha의 광범위한 지뢰탐색을 위해서는 수확을 앞둔 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없고 국방부에서는 지뢰탐색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산포기 각서를 징구하는 등 농업인들은 선뜻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일부 농업인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벼 베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에서 수많은 규제를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당한 마당에 유실지뢰 탐색·제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까지 농업인들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접경지역 유실지뢰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생명과 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피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현실적 수준에서 보상하라

셋째, 풍수해보험에 지뢰피해 등 접경지역 관련 보장 특약 약관을 신설하라

2020년 9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남상규 의원
(더불어민주당·춘천4)

타인의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협치할 것

신사우동 소양강변에 생태탐방로 조성, 번개시장엔 문화커뮤니티 사업 지원
작은 학교 문화공간 지원, 서면부터 번개시장 잇는 스토리 관광자원화 추진
강원도균형발전특별회계 수립 요구, 춘천엔 수소핵융합연구시설 유치 시동

요즘 소양강변이 환해졌다. 강변에 생태탐방로가 생겼고 꽃길도 가꿔졌다. 둑과 강변을 오르내리며 산책할 수 있게 되니 코로나19로 답답하게 갇혀 지내던 시민들이 숨을 크게 쉬는 공간이 됐다.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거리는 걸 보면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한 남상규 의원의 마음도 덩달아 흥겨워진다.

건너편 번개시장은 이 지역의 명소가 됐다. 서면 사람들이 새벽에 배를 타고 나와 농산물을 팔아 박사를 키워냈던 번개시장은 지금은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이다. 남 의원의 지원으로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더욱 볼 재미가 있는 공간이 됐다. 주민들과 숙의를 통해 번개시장에 담긴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것을 벽화로 그렸다. 벤치를 놓고 정감있는 인형을 앉혀 포토존까지 만들었다. 주말 밤에는 야시장이 열리니 누구나 즐겨 찾는 놀이공간이 됐다.

남 의원은 앞으로 금산리, 신매리, 박사마을 방동리 등의 관광 컨텐츠와 연계하고 서면 뱃길을 되살려 번개시장까지 오는 코스를 스토리로 엮어 관광자원화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또 인근에 소양 8교를 놓아 교통 편의를 높이는 한편 100년 역사가 담긴 소양1교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남 의원의 지역구는 춘천의 북쪽이다. 북산, 사북, 서면, 신북 등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남 의원의 지원이 적지 않다. 그는 서면 금산초에 체육관을 보수하는 등 학교를 고쳐주었고 오동초에는 스쿨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풋살장을 신축했다. 지촌초에는 놀고 쉬며 책을 보는 도서관을 만들어줬고 컴퓨터실을 리모델링했다.

"도심지의 큰 학교 아이들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많잖아요. 하지만 농촌 아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지역주민들도 모이고 쉴 공간이 없죠.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문화공간이고 커뮤니티 공간이며 놀이터가 되지요."

그는 관광객이 적잖은 서면 월송리와 퇴골의 도로를 넓혀 차량 통행을 쉽게 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00억 원 편성되었고 향후 그는 이것을 600억 원까지 늘리도록 힘쓸 요량이다.

춘천시와 힘을 합해 수소핵융합연구시설을 유치해 삼척과 더불어 강원도를 수소산업 거점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그의 큰 구상에는 거침이 없다.

남 의원이 의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잘못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지만 그대로 남아있어 행정에 짐만 되는 조례를 과감히 삭제하는 일을 그는 처음으로 해내기도 했다.

"권위와 형식이 아닌 원칙과 배려를 중시하고 타인의 가치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살아있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남 의원. 도민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협치를 이뤄가겠다는 그의 눈빛이 파란 하늘처럼 명료하게 빛난다.

날마다 새롭게 도민 생활 개선에 집중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로 흉물 개선 가능해져, 우수자치법규로도 선정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례는 시민에게 환호, 국립과학관 유치에도 힘써
시각장애인 경로당 신축, 등굣길 정비, 마을진입로 개선 등 생활 개선 지원

강원도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조성호 의원이 관련 조례를 미리 마련해놓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내에는 2019년 기준 49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데 조 의원이 지난해에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안전 펜스 설치, 지하 공간 배수 등 안전 조치와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이 가능해졌다. 관련사업을 위한 전담조직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자치법규로도 선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조 의원으로서는 보람이 적지 않다.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범죄마저 우려됐던 공사 중단 건축물을 주민들과 협의하며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조 의원이 이룬 성과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이 조례 제정은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지난 7월 결정된 국립전문과학관 유치는 원주의 경사였다. 조 의원이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으로서 송기헌, 이광재 국회의원과 강원도, 원주시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한 끝에 이뤄진 쾌거라 더욱 뿌듯했다. 원주 태장동 캠프롱 부지에 들어서는 국립전문과학관은 생명의료건강산업 거점인 원주의 특성을 살려 생명·의료를 주제로 건립된다.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마련한 건 가슴 벅찬 일이었다. 시설이 열악했지만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했었는데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았고, 단독주택을 매입해 시각장애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다. 단구2차아파트와 신림본동, 홍업면 승인동에도 경로당을 새로 지었다.

명륜2동에서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서원주초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했다. 판부면 서곡3리에는 진입로롤 조성했다. 여기에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 꽃을 심으면서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판부면에 복숭아, 옥수수 등을 파는 마을농산물 판매장까지 설치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판부의용소방대를 위해서는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홍업면 홍업초등학교 등굣길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천만이었는데 도비를 매칭해 인도를 설치하도록 도왔다. 홍업면에 있는 벼육묘장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쳐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물론 브랜드 택시에 네비게이션 콜 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도의원으로서의 그의 철학과 맞닿는다.

“강원도의 미래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일일시생일(日日是生日,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날)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활짝 웃는 조 의원의 미소가 정겹기만 하다.

박상수 의원
(국민의힘·삼척2)

날씨만 봐도 어민 걱정, 믿음 가는 4선 의원

태풍 피해 항구 개선 위해 힘쓸 터, 피해 보상금 현실화 필요 제기
4선 도의원으로 농로와 마을진입로 개선에 집중, 미인폭포 랜드마크화도 추진
삼척 수소산업 선정 위해 지속 협의, 삼척 비전 위해 뛸 것

얼마 전 삼척에 큰 일이 터졌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휩쓸고 간 것이다. 항구가 파괴되고 어구가 떠내려갔으며 마을이 침수되었다. 박상수 의원은 의회 일정도 멈추고 삼척으로 내려갔다.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였다. 손 잡으면서 얘기를 듣기만 해도 그들에겐 힘이 되었다.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인재가 많다고 판단되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산 사태나 배수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보였고 방파제를 잘못 놓아 항구가 파손되기도 했다. 임원항과 덕산항의 피해가 컸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배수로나 항구 개선사업을 하면 좋은데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인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이후 지역 어르신들의 조언을 들어 항구 개선을 했다면 지금 같은 사고는 또 안 났을 겁니다. 계속 개선해나가야지요."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특히 태풍으로 전파됐을 때 1,300만원, 반파됐을 때 65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보상액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박 의원의 태도는 믿음을 주었고 그는 지역에서 4선 의원이 되었다. 2002년도부터 도의회에 입성했으니 도와 삼척에 관련한 일이라면 손바닥처럼 훤하다. 일기예보만 들어도 상황이 예견되고 문제 상황을 목도하면 원인이 금세 파악된다.

신남항과 초곡항은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관로가 막히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근본적으로 수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박 의원의 말에 지역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임원항, 덕산항, 신남항, 초곡항 등의 피해는 박 의원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그는 평소 도로 개선 사업에 관심이 많다. 416번 지방도도 재구조 확포장 사업에 포함시켰다. 동막3리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며 동막7리, 교가5리 등에는 노인보호구역을 만들었다.

도계 경동탄광 인근 지역은 갱내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하다. 미인폭포까지 백화현상이 심화돼 주변이 온통 하얗다. 이곳을 정화하는 일 역시 박 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수질 정화와 함께 미인폭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도와 숙의하고 있기도 하다. 예산 투입이 협의되고 있어 이곳이 삼척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유명세를 탈 날이 머지 않았다.

"앞으로 삼척은 수소산업 기반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을 살기 좋게 정비하는 한편 수소도시이자 관광도시를 향한 삼척의 장기 비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베테랑 정치인 박 의원의 미더운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김준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속초2)

약자와 함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부지문제로 난항 겪고 있는 남부권에 중학교 이전 설립 반드시 이뤄낼 것
도 관광 1번지 설악동 회생 위해 체육시설 갖추고 전지훈련팀 유치해 활성화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막기 위해 정책대안 마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속초지역에서는 남부권에 중학교를 세우자는 논의가 몇 년을 이어져 왔지만 계속 지지부진하며 추진이 되질 않았다. 여기에 김준섭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도교육청과 속초시교육청, 학부모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 속초중학교의 남부권 신설 이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빠르게 대체 부지를 찾아내어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보다 이전 설립이 늦어지겠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속초 설악동은 강원도 관광 1번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한 이후 자연공원법 규제로 추가 개발이 제한돼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출신으로 설악동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김준섭 의원은 이곳 설악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현재 방치돼 있는 도 소유의 설악수련원을 매입해 그 부지에 각종 체육 훈련시설을 갖춰 전국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자는 묘안인데 도와 속초시가 함께 추진 방법을 찾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해 가정에서 자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지난 7월에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되어, 1학기에 5만5,000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를 지급했고 앞으로 초·중·고 학생 1인당 3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급식비 중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게 김의원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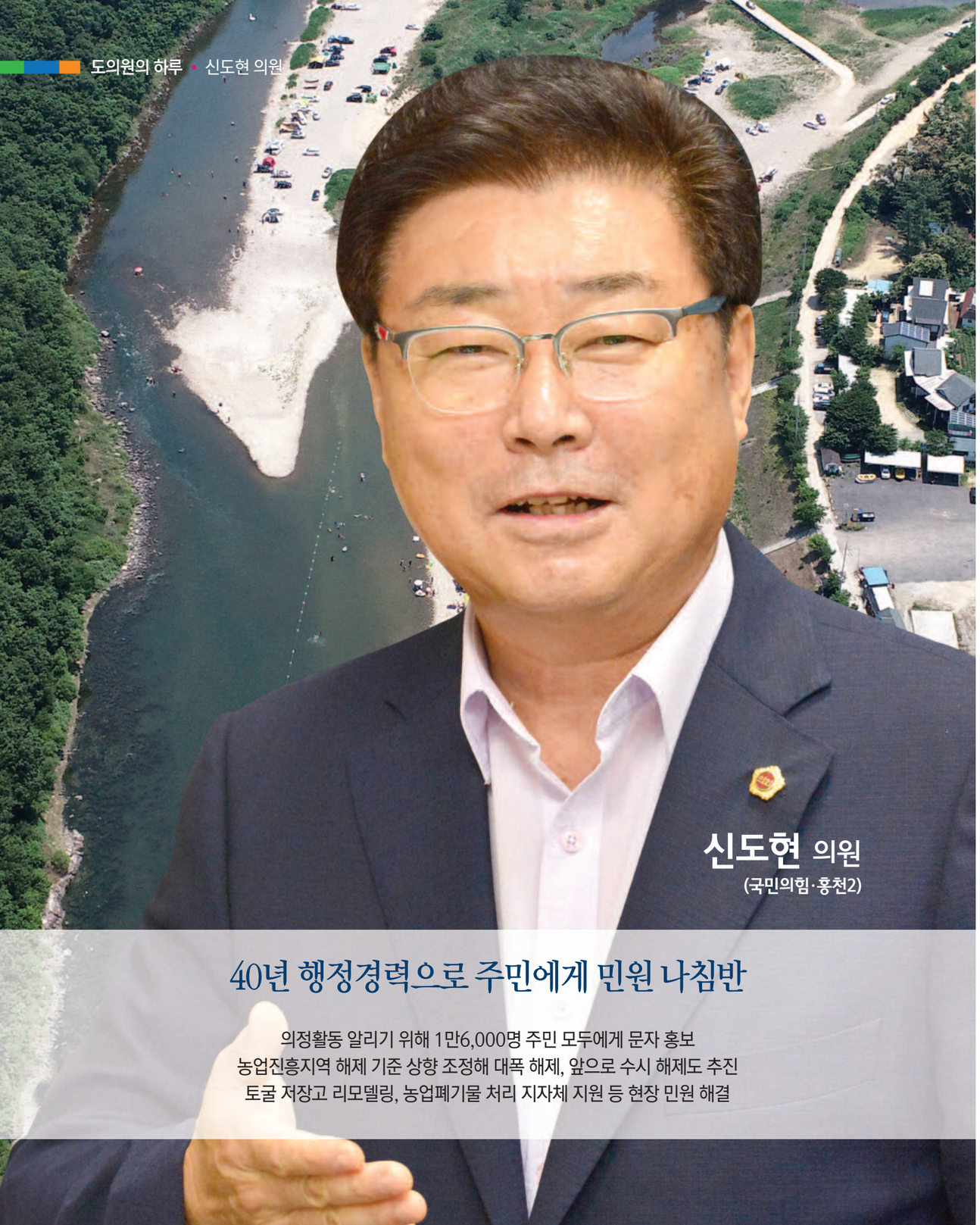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숙제다.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다 보면 학습 격차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앞으로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등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학교 운동부 운영 예산이 없어 학부모들이 직접 후원행사 등을 하는 걸 보곤 속초지역 학교에서 운동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고 없는 시군으로 갈 경우 관사를 제공하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속초시노인회에는 낡은 시설이나 물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속초시와 매칭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재난재해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개선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원은 지난해에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현재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의 슬로건 만큼이나 향후 속초지역과 도 발전의 대안은 남북교류와 통일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평생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힘써온 김 의원의 꿈은 약자와 함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도의원으로서 도민과 함께 그 꿈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



신도현 의원
(국민의힘·홍천2)

40년 행정경력으로 주민에게 민원 나침반

의정활동 알리기 위해 1만6,000명 주민 모두에게 문자 홍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상향 조정해 대폭 해제, 앞으로 수시 해제도 추진
토굴 저장고 리모델링, 농업폐기물 처리 지자체 지원 등 현장 민원 해결

홍천군은 면적이 1,820㎢로 전국 군 가운데 가장 넓다. 그중 신 의원의 지역구는 홍천의 8개 면을 포함한다. 홍천읍과 북방면을 뺀 나머지 전부다. 내면 명계리에서 서면 동막리까지 2시간이 걸릴 정도이니 엄청난 넓이이다.

그래서 신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의원 활동 내용은 모든 주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한다. 신 의원의 전화에는 1만6,000여 주민의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다. 수시로 문자를 하니 주민들은 신 의원의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알 정도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어려운 민원은 신의원과 상의하면 해결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무슨 일이 생기건 신 의원에게 물으면 해결방법을 척척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신 의원은 홍천군에서 공무원으로 40년을 근무한 행정 베테랑이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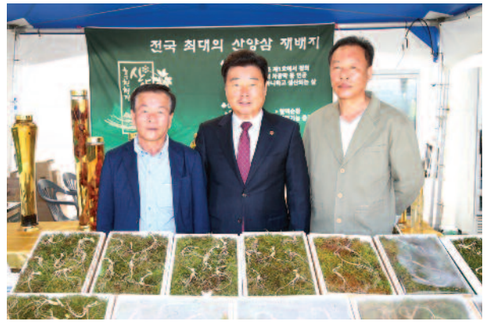
"주민들은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행정을 아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누굴 만나라든지, 어떤 군의원을 만나라든지 해결 통로를 알려줘요. 거기다 후배 공무원이나 아는 군의원들까지 연결해 주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죠."

더구나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하니 더욱 반갑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시킨 것은 큰 업적이다. 덕분에 도내 농업진흥지역 4만9,186ha 중 3,932ha가 해제됐고 농업보호구역으로 1,618ha가 변경됐다. 신 의원은 앞으로 해제 요건만 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바로 해제되도록 지침까지 바꿨고 앞으로도 해제요건 완화에 더욱 노력할 요량이다.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농산물 택배건수가 70만 건에서 110만 건으로 늘었다. 농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다.

20년 전에 지어진 감자 토굴저장고가 기온 상승으로 냉장효과가 떨어지자 리모델링을 해 전기냉장고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축사랩, 포트상자, 분사 호스 등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지 않는 농업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높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 신 의원은 농업폐기물 처리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의 제안으로 시군별로 행정지침을 바꿔 앞으로는 농업폐기물을 모아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일괄 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도 건설 시 보상되지 못했던 체불용지에 대해서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것도 신 의원이 주목하는 일이다. 도내에는 5,212필지에 318억6,600만 원의 체불금이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려면 31년이 걸린다.

"31년 동안 보상한다니 주민들로선 억울하죠. 땅도 빼앗기고 보상도 늦게 받으니, 재산가치가 완전히 하락하는 거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보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에 촉구할 것입니다."

신의원은 오랜 행정경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현실감있게 해결하고 있다.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평창2)

평창을 문화와 올림픽이 살아있는 도시로!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건립계획 확대, 올 12월 개관, 테마파크엔 국비 확보
무이-생곡 간 도로 확·포장으로 봉평-서석, 평창-춘천 더 가까워져
씨감자 수매가 인상, 여성 농업인 바우처사업비 증액, 영농 작목반시설 지원

김진석 의원의 지역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주로 열린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이다. 올림픽 유산에 대한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는 올림픽 개최 이후 줄곧 올림픽 유산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과 올림픽평화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에 매진했다. 그 결과 600㎡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올림픽기념관의 사업계획을 변경해 전시공간만 1,800㎡으로 넓히기로 했다. 올림픽기념관은 올 12월 대망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2023년에 완공되는 올림픽평화테마파크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도에 꾸준히 제안해 총 484억 원의 예산 중 올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 놨다. 2024년에 열릴 평창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도 그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방도 408호선인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고 터널구간 설계에 들어간 것은 김 의원이 자랑하는 성과다. 이 도로가 확·포장되면 서석과 봉평을 오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춘천까지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감자종자진흥원이 감자채종단지에서 씨감자를 수매할 때의 가격을 kg 당 100원 씩 인상하고 100a(아르)당 2,400kg까지 수매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애쓴 것 역시 보람으로 남아있다. 씨감자 수매가 인상으로 평창 등 감자생산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다소나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인 복지에도 유달리 관심이 많다. 농민수당을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10만 원의 복지카드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대 설치도 지원해줬으며 용평면 고추, 상추 작목반의 작업시설 개선을 도왔다. 고랭지 채솟값 폭락을 막기 위해 산지출하량 조절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년 신경쓰는 일이다.

산지로 둘러싸여 고립된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유독 많다. 김 의원은 작은 학교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봉평중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육상트랙을 정비하는 한편 대관령중의 교목과 교화 식재를 도왔다. 진부초·중·고에는 스키부 운영비를, 봉평초·중·고에는 배드민턴부 운영비를 지원했다. 상지대관령고에는 학생 휴식공간을 근사하게 조성해주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봉평의 이효석 문학관은 강원도 거점 문학관으로 지정되도록 애쓸 참이다. 최문순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진부일반산업단지는 올림픽산업단지로 전환, 올림픽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특화시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용평면에는 전천후운동장을 조성하고 무형문화재인 둔전평농악 연습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바람도 갖고 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평창을 문화와 올림픽이라는 콘텐츠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창의 구석구석을 발전시키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마디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코로나19 재확산, 집중호우 대응 위해 일부 예산 삭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9월 2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당초 회기보다 1일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통해 차기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회기 기간 중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집중호우 피해 등에 대응하고자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주요처리 안건

- 제2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운영에 관한 건
-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건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수혜자 범위 넓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9월 7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범위를 '현행범 체포의 보조적 활동'임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 19 등 사회적 재난과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심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병역법에서 규정한 '군복무 나이'와 개별법에서 규정한'청년의 나이'의 불일치에 따른 수혜 제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군복무 중인 청년'에서 '강원도민'으로 바꿔 수정가결 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020년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덕수**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체육 부문 지원방안 주문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는 제2차 회의를 갖고 소관 실국에 대한 조례 · 동의안과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도립극단 설립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 사업 운영에 만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다.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강원FC에 추가로 지원되는 10억 원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였으며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체육인의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타 분야에 비해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운영과 사업관리를 강조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한국여성수련원 출연 동의안
-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도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가결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조문의 순서와 용어만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농업기술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익직불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자연자산 보호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도내 접경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전략수립과 생태치유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조문의 단어만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환동해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악취 시료 채취사업이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이어지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농정국)
-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조례 개정 통해 강원상품권 활발한 유통 기대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관한 공통 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상품권의 온라인 결제서비스 연동과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해 상품권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심사 결과 제5조 제1항의 '통신판매 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조문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야별 대형플랫폼 업체들의 시장독점에 의한 도내 플랫폼 업체의 시장 약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계획 및 실행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다. 상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본법-조례-시행규칙' 에 이르는 법체계 확립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 시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처리 안건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도내 학생들의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교육위원회는 9월 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심영미 의원이 제안한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 국가 중심의 역사 교육을 통해 역사 과목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자신과 밀접한 향토사 교육을 받으면서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709억 9,100만원) 감소한 3조 1,941억 7,100만원이다. 이번 추경은 강원도교육청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추경이다. 교육위원회는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와 사업완성이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보고의 건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한국광업공단 설립에 대하여

이상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태백1)

- 정부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기된 법안으로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26일 재발의되었음.
-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 문제점은 첫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6조가 넘는 부채가 통합기관으로 이전되어 통합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 둘째, 통합기관의 부실은 광해공단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축소 또는 폐지시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점, 셋째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여 광물 수급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리한 통합을 중단하기 바라며,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도에서도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당부드림.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관리 필요성

정유선 의원
(교육위원회·비례)

-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5.1%가 비만, 10.7%가 과체중으로 25.8%가 과체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으로 인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또한 지난 5년간 강원도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 비만율도 강원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아동·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고, 비만에 따른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성장발달 및 비만 관리가 매우 중요함.
-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며, 건강한 식생활 및 주기적인 신체 활동이 핵심 대안임.

  ① 도와 도교육청은 강원형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및 비만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② 도와 도교육청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관리와 실질적인 비만 예방을 위한 전문화된 '강원도형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할 것을 요청함.
  ③ 건강교육 실시를 통한 비만 예방관리를 요청함.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해지방경찰청장 직급 격상 촉구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동해1)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1.85배인 18만 4,570㎢로 서해청, 남해청, 중부청, 제주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여기에 해양안보와 북한 선박 감시, 우리 어선 월선 방지, 통합방위 및 해양치안 업무 수행 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는 날로 막중해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강원도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및 정부에 직급 상향을 요구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 등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비서실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강원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승격에 대하여

최재연 의원
(교육위원회·철원1)

- 7월 31일부터 8월 5일 오후까지 철원군에 9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고 철원군의 한탄강 유역이 범람하여 이길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 이 같은 한탄강 범람 재발 방지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서 동송읍 장흥리를 지나는 지방하천인 한탄강 32.56㎞ 구역을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한탄강은 하천관리청이 2개 이상인 하천으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일괄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용강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도 요청드림. 용강소하천은 철원군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하천으로 개수사업 및 복구사업 등 하천관리와 수반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하천 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수해복구 사업으로 불완전 개수 구간이 많아 10~20년 빈도 호우 시 월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하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 한탄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용강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강원도 혁신도시에 대하여

남상규 의원
(교육위원회·춘천4)

- 혁신도시 이전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혁신도시에 선정되어 13개 공공기관이 입주 완료하여, 6년이 지난 지금 인구 3만 명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지방세 세수 증가 효과를 복합적으로 누리고 있음.
- 지난 2019년 3월 도는 원주혁신도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조례 3조에 의하면 센터의 사업 범위 중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이라는 역할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는 기금 조성 항목이 있어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혁신도시 성과의 공유와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한 공유와 기금 조성의 조기 시행과 성과의 공유 방법에 대한 강원도정의 계획을 서면 요청함.

침묵의 살인자 석면 제거 건강권 확보 촉구

반태연 의원
(교육위원회·강릉3)

- 선박 재료나 건축재로 폭넓게 활용되며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었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임.
-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137명의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자가 무려 823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도 교육청은 2019년 12월 현재 87% 석면 제거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2년까지 석면 제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반면 강원도는 산하기관에 대한 석면 제거 실적이 금년 7월 현재 총 65개 소 중 19개 소만 석면 제거를 완료한 상태로 미완료된 46개 소 중에는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 등 석면 위험에 민감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음.
  - ⇒ 도 산하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여 도민들을 석면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도교육청의 모범적인 사례를 거울삼아 석면 제로의 강원도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촉구함.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나일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정선2)

-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폐특법이 존속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함.
- 첫번째 이유는 오로지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기 때문임. 오늘날 폐광지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국가 주도의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에 있으므로 정부는 특별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폐특법의 존속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두 번째 이유는 이 법의 시작부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고 지금도 이 법에 폐광지역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임. 만일 폐특법이 종료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하며, 이것이 폐광지역의 일자리와 산업과 경제기반, 재정과 개발지원 등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듦.
-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특법은 존속되어야 하며 일몰 규정은 없어져야 함.
  - ⇒ 폐특법을 지키는 일은 비단 정선, 태백, 영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 만큼 강원도 차원에서 이 법의 항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동해1)

- 관광산업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도정 정책사업인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10년째 표류 중임.
-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 체결 당시 도에서 투입할 예산은 100억 원 출자밖에 없는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2020년 현재 도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또한 레고랜드 운영 수익에서 받아야 할 우리 도의 임대수익이 10배 이상 줄어들고 당초 멀린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레고랜드 주차장 건설 비용을 메우기 위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음.
- 지난달 28일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도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도는 공개사과, 사실 확인 및 자체 감사, MDA 원본 열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간담회로부터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강원도의회가 하루 빨리 레고랜드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의혹 진상 규명에 협조하길 바람.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경식** 의원

Q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한 분야에만 계속 종사를 해서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A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사회 진출을 돕도록 했어요. 즉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해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 취업알선, 진로·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병석** 의원 외 10인

Q 자율방범대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데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A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가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장소는 물론, 의류비, 장비, 순찰 차량은 물론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율방범대가 훨씬 안락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 **심영섭** 의원 외 3인

Q 군 복무하는 청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이들의 치료비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군 복무 청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상이 잘 안 되어 분란이 많이 나지요. 그래서 치료비와 관련 보험을 강원도에서 들어주기로 했어요. 이번 조례에서는 군 복무 중인 강원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이 군 복무 시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조례 덕분에 형편이 안 되어 보험조차 들지 못했던 청년들이나 그 가족들이 입대하면서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지요.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신도현** 의원 외 5인

Q 요즘은 묘지를 이장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많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묘지조차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요. 보존 방법이 없을까요?

A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존해야 할 묘지를 강원도가 지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묘지소유자나 관리인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군의 검토를 받은 후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시정 신청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는 묘지는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가 포함됩니다.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반태연** 의원

Q 장애인들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A 지금까지는 장애인만을 위한 인권보호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도에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관은 장애인 차별에 대해 상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지요.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으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응급 보호를 해요. 피해 학대 장애인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탁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있지요. 이밖에도 학대 피해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를 설치 지원하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재연** 의원 외 4인

Q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도 잦아지고 있어요. 맹견 외출을 통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A 네. 이번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말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맹견의 정의를 추가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해어요. 또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으로 규정해 아무데나 드나들 수 없게 했답니다.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박인균** 의원 외 3인

Q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강원도에서도 생태관광의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A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이 많기 때문에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박인균 의원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해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 발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가이드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윤석훈** 의원 외 1인

Q 이승복 장학기금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A 이승복 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의기를 받들자며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올 12월 31일로 장학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 장학기금은 이승복장학목장 매각대금, 장학사업을 위한 독지가의 기부금품 등으로 운영된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2025년까지 운용기간이 연장되었어요.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조성호** 의원

Q 하천점용료나 사용료가 더 낮아졌다면서요?

A 사용료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 징수 조건이 높아진 거죠. 다시 말해 그전에는 하천점용료, 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을 1건에 2,000원 미만일 경우 없던 것으로 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 1건에 5,000원 미만일 경우 없는 것으로 하였답니다.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심영미** 의원 외 3인

Q 청소년이 지역의 향토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A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향토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습 단계별 프로그램에 따라 향토사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교육감은 지역 문화원과 협력하여 향토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해요. 선생님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도 다녀와야 한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실제로 있는 유물과 유적을 답사하면서 실감나게 향토사 교육을 받고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강원도지사**

Q 강원상품권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가맹점주도 상품권을 할인해서 살 수 있다면서요?

A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도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강원도 여행플랫폼,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강원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도외 업체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즉 다른 지역에서도 가맹점이라면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에는 구매자만 할인해서 상품점을 살 수 있었는데 가맹점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알기 쉬운 정책 용어

언택트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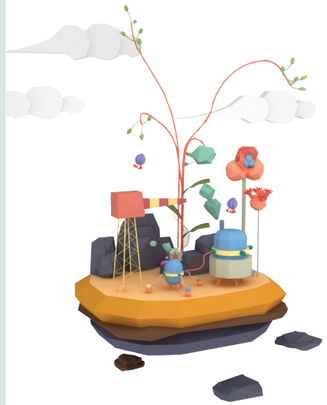
언택트란 영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인 '언(un)'과 접촉하다라는 뜻을 가진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이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확산되었다. 사람들이 외출을 피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집에서 즐기게 된 요리나 취미, 운동 등 여가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언택트 문화는 언택트 소비, 언택스 서비스, 언택트 마케팅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19의 합성어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전통적인 선진국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치력과 경제력이 선진국의 순위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위기 대응력이 선진국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소비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며 로봇 과학과 원격 기술이 성장하리라 전망되고 있다. 특히 원격 교육, 재택근무, 원격 의료, 화상면접, 화상결혼식, 온라인공연 등 비대면 원거리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자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수질이 좋아지고 있어 환경문제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폐특법 연장, 지역개발 추진 지원



●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강원도 내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폐광 이후 이들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자생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분명하고 확실한 경제적 회생의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지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폐광지역은 여전히 자치단체 소멸 위기까지 우려될 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회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2025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하며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폐특법 등 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김혁동(더불어민주당·태백) 의원이 위원장에, 김경식(더불어민주당·영월)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고 김상용(더불어민주당·삼척), 나일주(더불어민주당·정선), 박상수(국민의 힘·삼척), 박인균(더불어민주당·강릉), 신명순(더불어민주당·영월), 안미모(더불어민주당·비례), 이상호(국민의힘·태백), 장덕수(더불어민주당·정선)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후보자 능력·도덕성 검증해 적격 여부 판단

● 도의회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1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구성되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 전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작성해 제출한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청문회 이후에는 후보자의 장·단점, 적격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 의견을 기재한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남상규(더불어민주당·춘천) 위원장과 정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허소영(더불어민주당·춘천), 주대하(더불어민주당·속초), 위호진(더불어민주당·강릉), 함종국(국민의힘·횡성), 김형원(더불어민주당·동해), 신영재(국민의힘·홍천), 이종주(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도교육청, 청소년 인생학교 설립 추진

●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육 공간이 새로 생긴다. 강원도교육청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분야별 전문가가 만나 삶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한편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도록 하고자 청소년 인생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에 개설되는 이 학교에서는 놀면서 공부하고 삶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고 30명까지 수용되는 이 학교의 시설은 천전초교 부귀분교를 활용하는 한편 운동장에 글램핑 시설을 추가해 모험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꾸며지게 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공부와 놀이, 인문과 예술, 과학이 어우러진 융합교육을 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일을 하며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지를 전문가들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청소년인생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294회 도의회 임시회 의정대표협의회 (9월 2일)

▲강원도의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기탁(원주시청) (9월 7일)

▲강원도의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기탁(춘천시청) (9월 7일)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원본 열람 관련 경제건설위원회 집행부 간담 (9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9월 10일)

▲농림수산위원회 한국유기비료조합 강원도지역협의회 임원과 간담회 (9월 10일)

삼복(三伏)과 양구 수박

김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구)

필자가 어렸을 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삼복 중에는 닭과 수박의 소비가 많다. 냉장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큰 대야에 수박을 담가 뒀다가 쪼개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더위를 달래며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여름철 허한 몸을 다스릴 뜨끈한 삼계탕에 시원한 과즙으로 갈증을 달랠 달콤한 수박만큼,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 없었다. 그런 수박이 요즘 심상찮다.

모든 농작물이 그렇지만 과일은 특히 날씨에 민감하다. 과일은 품질과 소비에서 날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요즘 출하를 해야 할 양구 수박 농가들은 근심이 크다. 양구 수박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출하돼 혹서기 여름휴가에 맞춰져 있다. 양구 수박은 수도권 농산물 경매시장에서 항상 최고가를 유지해 왔다. 적절한 수분의 양과 12브릭스(100g의 물에 녹아 있는 사탕수수 설탕의 g수) 이상의 높은 당도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여겨졌다. 13~14브릭스에 12kg 정도의 수박이라면 최고의 상품인 것이다.

수박의 유통은 농산물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방식과 포전상이라 불리는 산지 유통인들의 산지에서의 선 수매계약으로 이뤄진다. 이 두 가지는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 경매시장을 거치는 경우는 당도도 중요하지만 출하 시기의 날씨가 경락가를 좌지우지한다. 반면 포전상이라 불리는 산지 유통인들의 산지에서의 선 구매계약은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유통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지 유통인들은 출하 날짜와 생산량을 못 박아 계약을 하지만 올해와 같이 7월 하순의 날씨가 안 좋아 경매시장에서의 경락가가 낮으면 물량을 내놓지 않고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는 잔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겨 농민들이 속앓이를 하게 된다.

수박은 수확을 해야 할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 키워 놓은 최고의 수박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 양구 수박은 159ha 면적에 264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장마철을 전후해 출하를 하기 때문에 당도 유지에도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출하 시기의 날씨에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강원도는 올해 국내 전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 4,797명의 절반에 가까운 2,173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지만, 이 중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농촌 인력의 부족으로 군민들까지 농촌 봉사활동에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가들은 이제 농산물 가격 형성에 일희일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농촌의 현실을 아는 학자들은 "최저임금처럼 낙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경매를 시작한다든지, 경매 과정에서 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졌을 때 이를 보전할 보험을 만드는 등 생산자 이익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농민들은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고대한다.

양구 수박은 품질이 우수해 농산물 거래시장에서의 최고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기의 불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수해 피해까지 입었으니 농가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올 가을에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좀 더 소비해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라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이제 반년여 정도 지났다. 교육·종교·관광·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세계 문명이 코로나19를 전후로 나뉠 거라 말할 정도이니 인류 문명이 대변혁의 기점에 와있는 것은 틀림없다.

코로나19 초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마스크 대란을 지켜보면서 식량을 구하려 줄을 서게 되는 식량 대란이 온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생각해봤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베트남·캄보디아·태국·러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국들은 식량안보를 걱정하며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쌀과 밀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던 여러 나라에서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은 코로나19 시대에서 가장 우선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민 수당은 우리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 직불제와는 다르다. 더욱이 올해 영농철 직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면서 농어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의 보장을 위해서는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급하다.

2020년도 예산총액 대비 농업예산 점유율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이 14.1%로 1위이고 강원도는 7.4%로 꼴찌다. 농업인구 1인당 예산액은 전북이 약 363만 원이고 강원도는 최하위인 230만 원 수준이다.

최문순 도정은 지난 2018년 도지사 공약으로 전국 최초로 연간 20만 원의 농어민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365억 원을 편성, 금년 7월부터 도내 농림어업인 10만4,000가구에 수당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2021년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지급은 사실상 무산됐다.

전북과 전남은 올해 농민수당으로 가구당 60만 원을 이미 지급했고 충남은 60만 원에 더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도내 30만 가구 등에 1,200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도내 농어민에게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독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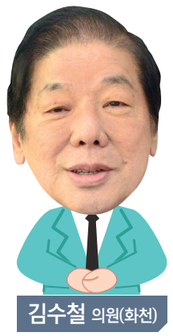
강원도는 이제라도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농어민수당 중 도비 분담금인 35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올 9월까지 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를 완료해 농어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대응에 농어민 수당 지급 논리가 매몰되면 농어민들은 다시금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힘없는 농어민에게서 일말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는 일은 부디 없길 바란다.

화천커피박물관과 산타우체국

축제, 그 겨울의 커피, 그리고 산타

화천은 산천어의 도시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산천어축제는 화천의 도시 컨셉을 바꾸어놓았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화천을 찾는 수백만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놀고 보고 즐길 거리들을 만들어냈다. 산천어커피박물관, 산타클로스 우체국 등이 그것이다. 이곳은 1년 내내 운영되며 축제로 화려한 화천을 추억하게 한다. 따뜻한 커피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산타클로스의 겨울을 미리 만나게 한다.

커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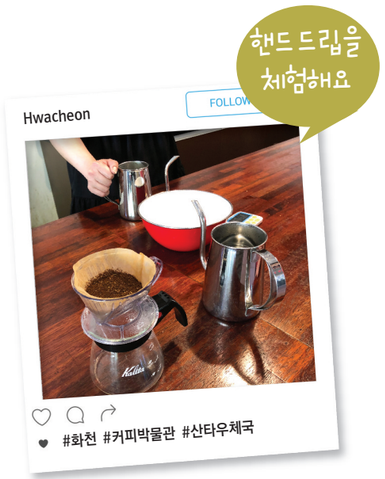


김수철 의원(화천)

산천어축제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어요. 화천은 산천어축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지요.

화천에서 산천어축제가 처음 열린 것은 2003년이에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던 파로호는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로 토사가 밀려들면서 죽은 호수가 되어 버렸어요. 화천 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불러모으는 축제를 3년만 열자며 기획한 것이 산천어축제랍니다. 그런 게 세계로까지 알려지며 벌써 18년 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화천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사계절 화천을 알리고 재미있게 채워줄 콘텐츠가 속속 생기고 있어요. 겨울 산천어축제가 이름을 알리며 여름에는 쪽배축제와 토마토축제도 마련되어 화천의 대표 컨텐츠가 되었답니다.



관광객들이 머물고 구경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 공간도 속속 생겼어요. 겨울에 문을 여는 세계실내얼음조각광장, 산천어 커피박물관,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산천어공방 등이지요. 그중에서도 요즘 화천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곳은 단연 산천어 커피박물관이랍니다. 이곳에는 커피를 추출하는 데 쓰였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모여 있어요. 커피 유물 수집가인 제임스 리가 오랜 기간 세계 곳곳을 돌며 모은 커피 유물을 기증하면서 2014년에 문을 열었지요.

이곳은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분돼 있어요. 전시관에는 커피콩을 볶는 다양한 종류의 로스터기가 전시돼 있어요. 산업화 이전 유럽·미국 등의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수제 로스터부터 영국 최초로 상업화된 로스터, 가스나 알콜버너, 전기 등을 활용한 로스터기들이 세대별로 전시돼 있어요. 전쟁 중 사용했던 커피 기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아요. 탄피를 이용해 만든 커피 주전자와 컵, 군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지급했던 에스프레소 커피 키트는 전쟁의 두려움과 피로를 커피로 위로했을 군인들을 상상하게 해요.

커피 체험장에서 핸드드립을 하는 체험도 잊지 마세요. 체험관에서는 직접 커피를 핸드 드립해 마실 수 있답니다.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따스한 커피 한잔으로 피로를 풀었다면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덥히러 가볼까요?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클로스를 만나러 가봐요.

산타클로스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에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이면 핀란드에 있는 산타마을의 산타오피스로 전해지답니다. 핀란드 산타마을에 머무는 산타클로스는 어린이들이 보내는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준답니다. 산타클로스 우체국에서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다음 달쯤 정말로 답장을 받아볼 수 있어요. 신기하지요? 2016년에 대한민국 본점으로 처음 생긴 산타클로스 우체국은 어린이들에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어요. 첫해에는 642통의 편지가 산타에게 보내졌는데 2019년에는 8,749통이 보내졌답니다. 전국의 산타를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랑의 마음을 한가득 안아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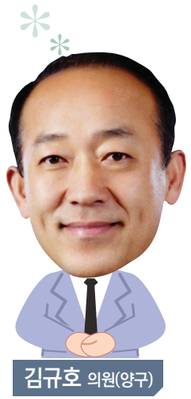
이곳에선 산타클로스와 관련한 각양각색의 인형을 구경할 수도 있고 산타 모형이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산타클로스 옷을 입어볼 수도 있답니다. 산타에게 편지 쓰는 것뿐 아니라 사탕을 이용해 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화천 과자도 만들 수 있어요.

우체국을 나와 대이리 방향으로 가면 딴산과 꺼먹다리 등 역사와 계절이 담긴 공간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단풍하면 딴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딴산은 작은 산이지만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해요. 꺼먹다리는 화천댐이 준공되면서 건설된 다리에요. 화천댐은 일제가 건설한 댐으로 이 댐을 지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6.25 전쟁 때는 화천댐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지요. 꺼먹다리는 그 화천댐의 슬픈 역사를 바라본 증인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구 군립박물관

박물관에 새겨진 인문의 길

양구로 가는 길에는 '양구로 오면 10년은 젊어집니다'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양구는 그만큼 맑고 밝다. 너른 버덩 위에 도시가 아담하게 서 있고 가을 볕을 받으며 푸른 들판이 춤춘다. 양구의 초입새부터 이어지는 군립박물관 행렬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인문학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 젊은 양지에는 미술부터 도자, 시대의 변화까지 인문의 길이 열려 있다.



김규호 의원(양구)

박수근미술관과 양구인문학박물관

화가 박수근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한국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민의 삶과 정서를 소박하고 절제감있게 표현한 그의 그림은 어쩐지 가슴 한 켠을 뭉클하게 합니다. 화가 박수근의 고향이 양구랍니다. 양구로서는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지요.

박수근을 기려 세운 박수근미술관 역시 양구의 자랑거리입니다. 박수근미술관은 건축가 이종호가 설계했어요. 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술가의 일생과 다시 만나는 곳'이라는 컨셉으로 미술관을 설계했답니다. 그만큼 미술관은 입구부터 묘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지요. 그리고 미술관 안에 전시된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삶을 만나고 그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박수근미술관을 나와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5분쯤 직진하다보면 용머리공원이 나옵니다. 용머리공원은 양구에서 가장 크고 호젓한 공원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양구인문학박물관이 어서 들어오라 손짓을 합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문학과 철학을 만날 수 있지요. 1층에는 정지용, 박목월, 박두진, 김소월, 김영랑, 한용운, 백석 등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시인들의 시와 문집이 소개되어 있어요. 2층은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으로 꾸며져 있어요. 김형석 교수와 안병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들의 일생과 철학, 그리고 작품이 소개되고 있지요.

양구선사박물관과 근현대사박물관

양구선사박물관은 거대한 고인돌이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고인돌을 보면서 우리는 청동기시대 선조들의 삶과 죽음을 상상해봅니다. 양구선사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선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양구 상무룡리부터 춘천, 화천, 홍천, 인제 등 북한강 유역에서 발굴 조사된 토기, 돌도끼 등 선조들이 일상에서 썼던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어요. 특별전시관에서는 고생대의 삼엽충 표본 화석이 가득해요.

선사박물관 옆에 근현대사박물관도 자리잡고 있어요.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전화, 책가방, 교과서 등이 전시돼 있어요. 말하자면 추억의 박물관 같은 곳이지요. 2층의 제2전시실은 양구문화극장이에요. 1956년 개봉한 영화 '백치 아다다'부터 2002년 작품인 '집으로'까지 옛 영화 포스터를 구경할 수 있어요. 오래된 창간호 잡지와 아리랑 자료들이 전시된 아리랑관 등도 있어요.

단아한 순백의 도자기

양구백자박물관과 DMZ야생화분재원

양구 방산면은 고려시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600여년 간 백자를 생산해오던 곳이에요. 조선 왕실에 올리던 백자도 이곳에서 생산되었지요. 방산면 주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백토가 가득해 이곳 주변에서 40여 기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이곳에서 생산된 맑고 아름아운 백자가 양구백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곳은 양구에서 빚어진 조선백자 유물이 전시된 양구백자실, 양구 백토로 현대의 작가들이 빚은 도자기를 전시한 현대백자실로 구분되어 있어요. 순백의 도자기들은 조용하고 단아한 품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릇이 주는 아름다움과 평온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지요.

박물관 밖으로 나가 뒤로 돌아가면 수입천이 장쾌하게 흐르고 있어요. 수입천은 방산면의 하천으로 폭이 넓고 깊이도 깊어요. 비 온 뒤에 가보면 쌩쌩하게 흘러가는 물살이 장관을 이루지요.

방산면에서 다시 동쪽으로 향하면 동면에 용늪으로 유명한 대암산이 있어요. 그 자락에 DMZ 야생화분재원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1,540여 점의 아기자기한 분재를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암산 자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생태식물원과 탐방로도 나오니 인문학 박물관 여행을 마쳤다면 이제 자연 속에서 마음을 힐링하세요.

포용성장을 위한 생활 SOC 공급방안

장철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 본부장

1. 서론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그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1]"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공급되었던 SOC 스톡이 국가적으로 상당 수준 축적되었다는 판단 하에 대형 SOC 분야의 예산이 2015년 26.1조 원에서 2019년 19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2022년에는 17.5조 원으로 감축될 예정이다.[2]

사람 중심·이용 중심의 SOC공급은 여전히 미진하여 개인 간 소득 불평등보다 지역 간 생활 SOC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그 동안 지역 단위,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되었던 대규모 기반시설 위주의 SOC 공급 정책이 사람 중심,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나타나고 있다.

OECD, World Bank, UN Habitat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용성장 및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기초 생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최저수준 보장에 대한 당위성을 대한민국 헌법과 특정 법률(대중교통 서비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서비스(교육기본법), 의료서비스(보건의료기본법), 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문화서비스(문화기본법), 체육서비스(생활체육진흥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용 중심의 SOC 공급은 여전히 미진하여 개인 간 소득 불평등보다 지역 간 생활 SOC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구형수[3]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분배(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기준)에 대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최근 10년(2007~2016년)간 0.295~0.314 수준에 머문 반면, 생활 SOC 공급에 대한 지니계수는 대부분 그 이상의 수치를 보여 불평등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SOC 중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은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역할이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기반이 되는 대중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서비스 등을 전국에 어디에 살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최소생활보장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2. 정부의 생활 SOC 공급계획

생활 SOC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도 생활 SOC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용 성장과 국민 모두의 생활 안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2019년 4월 15일). 생활 SOC 3개년 계획에서는 생활 SOC의 개념을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4]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SOC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이상의 국비를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시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으로 첫째,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4.5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체육관 등), 생활문화공간(공공도서관 등), 기초인프라(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등을 확충하는 데 투자할 예정이다.

둘째,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9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집중 투자사업으로 어린이 돌봄(온종일 돌봄체계 등), 취약계층 돌봄(공립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의료시설(주민건강센터 등)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시설(지하공간 통합지도,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등), 깨끗한 환경(석면슬레이트 철거, 휴양림 등)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방식도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중앙 지원, 디자인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등 14개 부

처, 문화재청이 참여하는 '생활 SOC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를 지원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며,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기존 보조율(문화 30%, 체육 40%) 보다 높은 50%로 인상하고, 지자체별로 구성된 생활 SOC 추진단이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SOC 공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였던 정부로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활 SOC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도 생활 SOC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효율적인 생활 SOC 공급 및 운영방안

효율적으로 생활 SOC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전국 일률적인 방법이 아닌, 지역이 발굴하고 집행하는 자발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세워야 한다.

생활 SOC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기반시설 공급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 및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 SOC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과 함께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 젊은이가 대도시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젊은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중앙부처의 칸막이 구조에 의한 사업의 단편화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재정분권과 함께 균특회계사업의 지방이양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방이양에서의 기본방향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지자체의 의사결정체계를 부서별 협력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초한 분산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장소 통합적인 추진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무시한 전국 일률적인 방법이 아닌 지역이 발굴하고 집행하는 자발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이 자체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시군의회가 주도하는 사업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효과 검증 없는 선심성 사업이 아닌 성과 위주의 사업이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들 중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수요가 없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시설만 설치하고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 착수부터 사업 완료 후 운영까지 감안한 사업이 선정·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에 침투하지 않는 표면적 정책이 아닌 사람이 체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 SOC 사업은 사람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행정성 사업이 아닌 주민 체감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생활 SOC 사업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특정 공간에 사업을 집중하는 공간 재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일본에서 지방창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압축(COMPACT)과 네트워크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과 의료 · 복지, 상업시설 등을 특정지역에 모으고 연계 교통망을 재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텅 비어가는 지방을 되살리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스마트리전(Smart Region)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속적인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 SOC 사업은 주로 H/W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공급만해서는 효과가 없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그래야만 목표했던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의 SOC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 균형 차원에서 지자체의 행정단위 위주로 공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공급된 SOC 시설의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되는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재정 투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는 지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역별 공급이 아닌 생활 SOC를 이용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2) 남지현외,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 362, 2019. 3. 13.

3) 구형수, 생활 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국토정책 브리프 696호(2018. 12. 31)

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생활 SOC 3개년 계획, 보도자료, 2019. 4. 15.

* 출처 : 지방자치이슈와포럼 2019 June Vol.25

[편집자 註] 강원도의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강원의정〉은 강원도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강원도의회의 모든 것'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민의 권리인 청원과 진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7
청원과 진정

풀기 어려운 민원, 의회에서 함께 숙의

● 청원 : 주민이 의원과 함께 민원을 의회에 제출 ●

청원권이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청원서의 내용은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희망을 진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회라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도 포함된다. 하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회에서의 청원은 주민이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청원을 할 때는 도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청원제출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시정요구, 징계와 처벌의 요구, 조례와 규칙의 제 · 개정과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이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접수할 수 없다.

청원이 접수되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하거나 폐기한다. 본회의에서도 채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보고서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진정 : 특정 사안에 대해 진정, 건의, 탄원, 문의, 호소 ●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기관 내지 처분관서에 실정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강원도민은 도의회 의원 및 도의회 사무국장에게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진정서는 청원과 달리 특정 구비요건이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소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민원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할 수 있다.

진정에 대해 의회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한다. 최종 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첨부해 지역구 의원과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자료실 살펴보기

정기간행물

신착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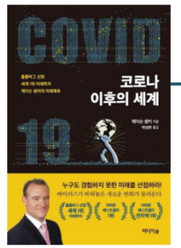
여행도서

서고

의정자료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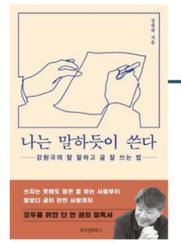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구하시거나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 개인적으로 **마음의 양식**과 지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자유롭게 의정자료실에 들려주세요
최신 이슈와 정책에 대한 정부,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각종 자료 검색 및 인문 철학, 소설 등 **희망도서도 신청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료실이 고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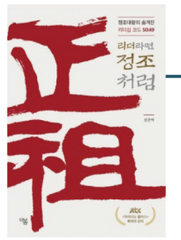
[사회]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셩커 지음 | 미디어숲 펴냄 | 2020. 5

저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큰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한다. 각 분야에 있어 대전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문] 나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 지음 | 위즈덤 하우스 펴냄 | 2020.6

이 책은 칭찬할 때, 혼낼 때, 발표할 때, 제안하거나 보고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알맞게 말 잘하는 18가지 방법과 누구나 책 한 권 쓰는 2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저자 자신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 구체적이다. 과연 어떻게 쓰는가 ?



[역사] 리더라면 정조처럼
김준혁지음 | 더봄 펴냄 | 2020. 6

정조는 최고의 개혁군주로 평가받는다. 저성장과 실업, 전염병과 재난의 위험속에 노출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각국 지도자들을 보며,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현명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정조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의정자료실 전화 : 033-249-5045

2020년 월별 회기운영 일정

월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고
계	140일 이내	(정례회 56, 임시회 74, 예비회기 10)	회 기
2월	제287회 임시회 2.11 ~ 2.20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시찰 등	
3월	제288회 임시회 3.17~ 3.20 (4일간)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등	3. 1 삼일절
	제289회 임시회 3.24~ 3.27 (4일간)	■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23~4.1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4월	제290회 임시회 4.21 ~ 4.29 (9일간)	■ 제1차 도정질문 실시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시찰 등	4.15 국회의원선거
5월	제291회 임시회 5. 6 ~ 5.19 (14일간)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시찰 등	5. 5 어린이날
6월	제292회 정례회 6. 2 ~ 6.18 (17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2차 도정질문 실시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 시찰 등	6. 6 현충일
7월	제293회 임시회 7. 3 ~ 7.15 (13일간)	■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 시찰 등	7. 8 도민의 날 행사
9월	제294회 임시회 9. 2 ~ 9.10(9일간)	■ 도의회 개원 64주년 기념행사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 시찰 등	'56. 9. 6 제1회 도의회
10월	제295회 임시회 10.13 ~ 10.22 (10일간)	■ 제3차 도정질문 실시 ■ 어린이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시찰 등	10. 1 추석 10. 3 개천절 10. 9 한글날
11월·12월	제296회 정례회 11. 3 ~ 12.11 (39일간)	■ 행정사무감사 실시 (업무보고 병행) ■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 · 처리 및 현지 시찰 등	
필요시	예비회기 (10일간)	■ 긴급 임시회 소집 또는 기존회기 연장 운영	

제295회 임시회 10.13~10.22(10일)

10 2020 October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296회 임시회 11.3~12.11(39일)

11 2020 November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2020 December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궁금하면?

우리가 뽑은 강원도의회 의원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제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나보세요.

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http://livecouncil.gwd.go.kr/)에 접속하세요.
강원도의회 본회의, 6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강원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angwon.kr/) 하단 왼쪽 '인터넷방송' 클릭 또는 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http://livecouncil.gwd.go.kr/)에 접속
- 의정 중계 전용 채널 8개
- HD급 고화질 인터넷방송

※ 지난 회기는 LG헬로 강원방송을 통해 녹화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도민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도민과 손을 잡겠습니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발맞추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